재건축 기대 송정·운암주공 매물 급감 가격 상승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물망〉

U대회·세계수영대회 선수촌·지원시설 관심 고조

U대회 선수촌, 화정주공 재건축 순조
지원시설, 염주주공은 조합설립 무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들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U대회의 경우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U대회 행사지원시설'로 선정된 염주주공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조합설립이 무산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선수촌 후보지로 물망에 올라 있는 송정주공과 운암주공아파트의 매매가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광주U대회 선수촌 및 지원시설=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으로 쓰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현대건설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로 조성하는 선수촌은 201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선수촌은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광주U대회 행사지원시설부지'로 지정된 염주주공아파트는 지난 27일 염주초등학교 강당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조합원 참여율이 저조해 총회가 무산됐다. 이미 K건설과 H건설 등 3~4개 대형건설업체가 재건축에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는 상태지만 이날 총회 무산으로 재건축 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일단 올해 말까지만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아파트 철거를 거쳐 2015년 7월 광주U대회 기간에는 주차장과 문화행사장, 토산품판매장 등이 들어선 지원시설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아파트 착공에 돌입하게 되며, 이르면 2년 후인 2017년 중반께 입주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주주공은 9만6582.8㎡의 부지에 5층 높이 아파트 42개 동 1118세대로 구성돼있으며,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 28개 동 1942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염주주공은 화정주공에 비해 입지가 훨씬 좋은데다 대지 면적이 더 넓고 평수도 중·대형이어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U대회지원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광주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도 분양성을 높여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FINA)에 약속한 대로 3500세대 규모의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U대회 선수촌의 예를 적용, 기존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방침도 이미 제시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은 광주U대회선수촌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재건축 방식은 낙후한 도심을 활성화하면서 시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메인 경기장으로 쓰일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자동차로 12분 거리(5.28㎞)에 있는 북구 운암주공3단지(1984년 준공·2020세대), 그리고 15분 거리(9.07㎞)인 광산구 송정 주공아파트(1983년 준공·952세대) 등이 유력한 재건축 대상지로 분류되고 있다.

일부 부동산업계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돌면서 최근엔 이들 아파트의 거래가가 상승하며 매물이 급감하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U대회 선수촌 조성 당시에서는 '메인경기장에서 도보로 5분, 광주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이 같은 거리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내 17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두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대규모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을 노린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 광주 도심 곳곳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묶어 3500세대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오는 201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29%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지하에 50대 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인근 교통난 해소 기대

광주시 서구가 주차 수요가 높은 금호동 먹자골목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광주시 서구는 28일, 금호동 764번지 먹자골목 부근 1559㎡(약 471평)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이 투입되는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은 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금호동 남양파크 아파트 건너편 지하에 건립된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몸살을 겪던 먹자골목 인근의 교통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70~80면으로 계획됐던 주차면수가 예산 등의 문제로 줄면서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아쉬움이 남게됐다. 서구는 애초 먹자골목 외곽이 아닌 내부에 사유지를 구입, 지상 3층에 80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토지소유자를 설득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부지를 옮기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공원이 조성돼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하게 됐으며, 아직 추가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

시티 뉴스

광주여성발전센터 일자리 네트워크 실무자 회의

광주여성발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9일 오전 11시 지역 5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초청해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친화기업 일촌 협약을 한 해당 업체 대표,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해 ▲취업지원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 ▲질 좋은 일자리 연계활성화 및 상호 정보교류 등 지역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업체들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듣고, 업체 간 향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황인숙 센터장은 "여성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업체와 함께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동구 도심 공터 등 1000㎡에 철쭉 2000그루 식수

도심 속 흉물로 주민들에게 외면받던 공터가 꽃밭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동명동 푸른길 공원 주변과 옛 계림극장 옆 공터 등 부지 1000㎡에 철쭉 2000그루를 심는 등 철쭉꽃밭을 조성했다. 이 곳은 누군가 몰래 내다버린 각종 생활쓰레기가 쌓이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동명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꽃밭 조성사업엔 동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동명창조문화행복공동체, 자율방범대, 새마을협의회, 자활센터 등에 소속된 주민 70명이 참여했다. 내년 봄이면 이곳은 형형색색의 철쭉꽃이 만개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행기자 golee@

북구 내달 6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

광주시 북구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간 북구 용봉동 청사 1층 광장에서 '2013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엔 국화 한 줄기에서 여러 꽃송이를 피워낸 다륜대작 등 국화 2580점과 동물 모형의 현애작품 175점, 소국 3만점, 국화 분재 60점 등이 전시된다.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선 석촌 수석관 주최로 수석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어릴 적 동심을 자극하는 인형극이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공연되는 것을 비롯해 마술공연·음악공연·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U대회 통역 자원봉사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참여

40명 자원봉사자 교육

광주U대회 통역 자원봉사에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정의화)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통역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28일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4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U대회 기본사항과 준비현황,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중국·일본·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로, 한국어와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광주U대회 기간 동안 모국 선수단 및 관광객 등 외국인에 대한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을 마친 한 결혼이주여성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2015년 광주U대회 통역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능력을 꼭 발휘해 보고 싶다"고 열의를 보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광주 하수처리장이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서부발전, 포스코에너지, 해양도시가스, 탑인프라솔라 등과 함께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시는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서부발전 등 4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광주 제1, 2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상부와 유휴부지에 2300억원을 투자, 40MW급 연료전지 발전소와 7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게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내달 13일까지 집중단속

광주시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28일, 자동차 부실검사 예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는 49개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검사와 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검사업무 운영관리 실태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불법검사 여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